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석으로 은유된  
보이지 않는 중심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박지선

자연석으로 은유된  
보이지 않는 중심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박 지 선

# 인 준 서

박지선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인은 사람, 사물, 장소를 오랜만에 접했을 때 시간성에서 비롯되는 익숙함과 낯섦의 간극이라는 양가성을 느끼고 이러한 대상과의 관계를 작품에서 표현한다. 익숙함과 낯섦이라는 양가성은 본인에게 익숙하던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대상이 가지고 있을 법한 보이지 않는 중심을 느끼게 해준다. 이 보이지 않는 중심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대상, 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비유이며 본인의 작업에서 자연적으로 표현된다.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사람이 갖는 자아의식이나 집단의 가치가 형성되듯이 자연적은 긴 세월동안 주변의 환경을 거치며 생성된다. 이 둘의 형성 과정에서 유사함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중심과 자연석을 은유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자연석은 주로 개인의 기억이나 사회적 역사를 담는 건물 안에 위치한다. 대상에서 느껴지는 양가성은 자연석을 지탱하는 실로 비유되며 미묘하게 떨리는 균형을 이루고 가끔은 그 균형이 파괴된 이미지로 표현된다.

정리하자면, 흐르는 시간 속 대상에서 느낀 양가적 감정과 그것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존재하는 대상에 대하여 탐구하며 본인의 작업에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9년 석사학위청구전과 더불어 2021년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간성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업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 방향성과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첫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익숙함과 낯섦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자연적으로 비유된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 둘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셋째, 보이지 않는 중심이 존재하는 시간성을 담은 대상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제 III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작품 방향성과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2
1. 작품 형성배경 .....	2
1)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익숙함과 낯섦 .....	2
2) 자연석으로 비유된 보이지 않는 중심 .....	3
3) 시간성을 담는 대상들 .....	5
2. 작품 표현방법 .....	7
1) 기억과 관련된 건물과 보이지 않는 중심 표현 .....	7
2) 실과 철 구조물을 이용한 관계에 대한 표현 .....	9
3. 작품 분석 .....	11
III. 결론 .....	34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Ⅲ .....	11
[작품 2]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Ⅱ .....	13
[작품 3]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Ⅰ .....	15
[작품 4] 두 번째 주름 .....	17
[작품 5] 보이지 않는 것들-2018-Ⅳ .....	20
[작품 6] 보이지 않는 것들-2018-Ⅴ .....	22
[작품 7] 붕괴 Ⅰ .....	24
[작품 8]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영 Ⅰ .....	26
[작품 9] 낮선 풍경 .....	29
[작품 10]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2021 .....	32

## I. 서론

우리는 살아가며 동일한 현상을 두고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리곤 한다. 이는 각자가 갖는 가치 판단 기준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 가치 판단 기준은 한 개인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오랜 시간 여러 경험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축적되며 형성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것을 작업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설정하고 자연적으로 은유하여 표현한다. 자연석의 형성과정은 한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돌은 과거의 시간과 그 시간동안 주위의 환경이 집적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돌의 특성이나 모습은 생성된 환경과 장소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대변된 자연석은 대상에서 본인이 느끼는 익숙함과 낯섦의 양가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작업에서 표현된다. 익숙했던 친구나 장소를 오랜만에 접했을 때 느껴지는 낯섦은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시간동안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반된 감정은 본인이 대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여 공동 가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서로 다른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중심이 존재하는 대상을 작게는 개인의 기억을 담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역사를 담는 건축물로 표현한다.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중심은 여러 가닥의 실을 통하여 상반된 양가적인 감정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형으로 표현되고 가끔은 파괴된 이미지로 보여진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중심을 떠오르게 만든 시간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것들을 담는 대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본인의 작업에서 용접된 건물과 그 안으로 투시되어 보여지는 자연석과 실과 철 구조물을 이용하여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작품 형성배경

#### 1)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익숙함과 낯섦

인류가 사용하는 시계와 달력의 존재는 우리 모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간은 하나의 작은 조각이 되어 각자의 삶을 구성한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구성하는 조각들의 크기를 제각기 다르게 분류하며 어떠한 조각들은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잊지 않기 위해 깊이 각인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시간으로 인한 경험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박태우는 “시간은 경험과 주관적인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정적, 심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경험에 의한 체험들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은 기억(연상)에 의해서이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지는 순차적인 구성 외에 각각의 개인들에 의해 재구성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 이와 같이 기억은 과거의 시간을 지속시키며, 우리의 의식 속에서 변형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기억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지속이며 자아의식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sup>1)</sup> 고 말한다.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주관적 기억은 항상 익숙하게 기억될 것만 같은 대상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본인에게 오랜만에 만난 친한

---

1) 박태우, 『근대건축물의 공간 재활용에서 시간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논, 2011, pp.46-47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낯센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린 시절을 지내던 마을은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찾아갔을 때 생경함이 익숙함을 앞섰고, 한참을 돌아봐야만 과거의 기억을 찾을 수 있었다. 긴 시간을 보냈던 학창시절의 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낯센은 대상에서 느끼는 본인의 주관적 기억과 본인이 존재하지 않던 시간동안 다른 관계를 맺으며 흘러간 대상의 시간 사이의 괴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익숙함과 낯센의 양가적인 감정은 그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대상이 가지고 있을 법한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본인에게 느끼게 해준다. 이것은 각자가 갖는 가치 판단 기준과 같이 오랜 시간동안 여러 경험과 그로부터 발생한 생각이 축적되며 각자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본인은 이 가치 판단 기준의 발생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주변 환경을 반영하며 압축되고 깎여 나가며 만들어지는 자연석과 유사함을 느끼고, 대상이 갖는 익숙함과 낯센이라는 양가성에서 발견한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자연석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 2) 자연석으로 비유된 보이지 않는 중심

본인의 거주지는 북한산에 위치하며 이는 돌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어린 시절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본인보다 더 큰 바위가 절벽에서 골목길로 떨어져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타고 있던 차량은 주행을 멈추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고 차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돌은 아직까지도 본인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후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던 자연석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큰 위압감을 갖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우뚝 자리 잡은 거대한 자연석은 인간의 힘으로는 손쉽게 움직일 수 없다. 본인은 함부로 손쓸 수 없는 자연석의 무게감이 대상

속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비물질적이며 비공간적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 있는 역동적 활동으로 보았다.<sup>2)</sup> 그리고 실체의 본질을 이루는 활동이나 힘을 단자(Monad)라 명칭한다. 이는 관념적이며 눈으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존재하며 모든 곳에 널리 퍼져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자연적으로 은유되어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에게 존재하며 모든 곳에 널리 퍼져있다. 그의 주장에서 단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본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자연적은 작계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대상, 집단이나 도시 등 다양한 층위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비유이다. 이 자아의식과 가치는 자연적이 오랜 시간동안 여러 외부 요인들이 뭉치고 깎이며 생성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한 개인이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들과 사건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 경험으로 축적되고 때로는 단련되어 보이지 않는 중심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오랜 시간 만들고 지켜온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은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낡은 것들은 없애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힘 쓴다.

본인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자연적으로 비유하여 시간성을 담는 대상들과의 관계를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

2) William S. Sahakian, 권순홍 역, 『서양철학사』, 문예출판사, p.196

### 3) 시간성을 담는 대상들

우리는 제각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 각자의 환경을 이루는 요소는 수없이 많지만 의식주(衣食住)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요소이다. 본인은 세 가지 요소 중 주거 공간에 주목하고 이를 단순히 건물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감의 대상, 세월의 흔적을 담으며 함께 경험을 쌓아가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본인의 이러한 인식은 건축에 있어서 앞에서 다루어온 시간성에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에서 과거를 지속시키며 주관적인 기억을 낳는 시간은 건축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각각의 의도대로 지어진 건축물은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렇듯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sup>3)</sup> 건물은 사람이 살아감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장소의 의미로 치환된다.

본인이 대상에서 시간성을 느낀 경험은 과거 대학시절 벽지를 뜯는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집은 그 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한다. 그 중에서도 벽지는 집의 일부를 이루며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구조물이다. 얼마 전 내방의 벽지를 떼어내는 일이 생겼다. 이 행위를 하며 기묘한 경험을 했다. 두 개의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의 벽지를 뜯어낼 때였다. 세 면의 벽지가 나란히 뜯겨 나와 내 방의 안쪽 공간이 해체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해체된 벽지는 나의 지나간 시간과 추억을 담고 있다.<sup>4)</sup>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유년시절을 지냈던 집에 대한 기억은 시간성에서 비롯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분기 별로 거실 기둥에 기록된 어린 나와 언니, 동생들의 키. 때 묻은 벽지와 집안 곳곳에 남겨져 있는 낙

3) 건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06.13

4) 본인의 작가노트 발췌, 2014

서들. 과거 집이라는 장소에서 경험한 시간은 본인과 가족들의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남게 되었고 더 나아가 본인의 작업에서 집이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인을 상징하는 오브제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집이 개인의 시간을 담는다면 공동체의 역사를 품는 장소도 존재한다. 높은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에서는 빠른 순환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찾기 힘들어 보이지만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대문에 위치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 운동가들을 수감하고 처형한 장소이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곳에서 순국하였으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겪은 고통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과거의 시간 속 선조들이 지키고자 투쟁하고 노력한 역사는 순국선열의 얼로 남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서려있다. 본인은 장소 안에 존재하는 순국선열의 얼을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시간성을 담으며 저마다의 중심을 갖는 대상들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지만 그 모습을 감추고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사람이 머물며 지속되던 장소는 도시 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이유로 사라지기도 한다. 본인은 장소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존재하던 가치들에 주목하고 작업을 통하여 둘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 2. 작품 표현방법

### 1) 기억과 관련된 건축물과 보이지 않는 중심 표현

건물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기체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기체로 이루어진 공간을 볼 수 없지만 공간 가장자리에 있는 액체나 고체 상태인 물질의 표면으로 공간 형태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인식한다. 형태를 지각하는 미학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체 상태의 공간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공기로 이루어진 체적의 공간을 대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이란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항상 공간이라는 체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을 대상화할 수 없다.<sup>5)</sup>

본인은 과거 공간 형태를 간접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해주는 벽지에 주목한 작업에서 더 나아가 기억과 관련된 건축물과 그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기체의 흐름으로 구성된 공간은 본인의 작업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난 자연석과 이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의 균형으로 표현된다.

작품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Ⅲ]에서는 집적된 여러 건물들이 보여진다. 이 건물들은 얇은 스테인레스 스틸 철사로 용접되어 만들어졌으며 그 안으로 매달린 자연석이 투시되어 보여진다. 이는 본인이 살았던 집들의 형상으로, 이를 만들고 하나로 조립한 작품이다. 본인의 기억과 관련된 장소들을 모아놓고, 그 장소마다 존재하였던 가치들을 자연석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Ⅱ],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Ⅰ]은 [보이지 않는

---

5) 김명식,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p.17

는 것들-응축-Ⅲ]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었지만 개인적인 기억을 담은 건물이 아닌 사회의 역사를 담은 건축물이 등장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Ⅱ]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전시관(보안과청사) 건물이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서려있는 애국선열의 얼을 작업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은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Ⅰ]은 독일의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 연작]에서 표현된 기억을 담은 건물들과 그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주름] 작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다리를 만들고 복제하여 가장 아래에 배치하였다. 그 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기반이 되는 대지와 솟아있는 건물들을 표현하였다. 다리와, 대지, 솟아있는 건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치들로 비유된 자연석이 보여진다.

보이지 않는 중심은 지나온 시간을 모두 반영하며 형성된다. [작품1] ~ [작품8]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된 돌은 [작품9] ~ [작품10]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인은 자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어 켜켜이 쌓이는 철물로 자연석을 본따 만들고 주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지나온 시간을 반영하며 중심이 형성되는 것처럼 주변을 반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 2) 실과 철 구조물을 이용한 관계에 대한 표현

신타래는 인간이 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놓은 것을 말한다. 어릴 적 본인에게 신타래를 푸는 행위는 이따금씩 실패로 돌아가곤 했다. 시작점을 찾지 못해 중간부분을 대충 잘라 뽑아내서 사용하던 실들은 뽑혀나가는 과정 중에 서서히 얽히고 설켜 결국 하나로 뭉쳐지고는 했다. 그럴 때면 한없이 얇아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끊어낼 수 있던 약한 실 한 올 한 올이 만들어낸 힘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본인의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약한 존재들의 연대에서 발휘되는 강한 힘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생각을 [작품 1] ~ [작품 4]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작품 1] ~ [작품 4]에서는 얇은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용접하여 만든 구조물 안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이 투시되어 보여진다. 이 자연석은 여러 가닥의 얇은 실들로 지탱되어있다. 얇은 실 한 올 한 올은 약하지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 그와 함께 실로 지탱된 돌은 미세하게 떨리며 균형을 유지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며 떨리는 모습은 본인이 대상에게서 느낀 익숙함과 낯섦의 양가성으로 인한 것이다. 건물과 돌을 연결하는 실들의 가닥은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 하나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본인과 대상이 관계된 시간의 ‘익숙함’ 과 본인이 배제되어 있던 대상의 시간 속 형성된 관계들의 ‘낯섦’ 의 양가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균형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얇은 철사나 실로 만들어진 모빌, 무게추를 달고 있는 저울 등으로 저마다 다양할 것이다. 본인에게 균형의 이미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미묘한 떨림을 유지하며 지속되는 상태, 그리고 가끔은 균형이 무너져 파괴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곤 한다.

[작품7], [작품8]에서는 자연석과 그것을 지탱하는 관계들의 균형이 무너져 파괴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사라지는 장소와 그 안에 존재하던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작품9], [작품10]에서 표현된다. 이전 작품들에서 자연석이 구조물 안의 일부분으로 나타났다면, [작품9], [작품10]에서는 자연석이 바깥으로 나와 작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였지만 사라진 장소들은 해체된 폐허의 철 조각으로 자연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 3. 작품 분석



[작품 1]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III

## [작품 1]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Ⅲ

연도 : 2018

크기 : 120×90×125 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실

### 제작방법

1.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길이에 맞춰 절단한 후 아르곤 용접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를 각각 만든다.
2. 만들어진 결과물을 채색한다.
3. 실을 사용하여 자연석을 내부에 매달아 준다.
4. 건물 구조물들을 하나로 조립하여 설치한다.

### 작품설명

본인에게 집은 그 장소에서 경험한 기억을 담는 공간이며 작업에 있어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인을 상징하는 오브제로의 역할을 한다.

본인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거주하였던 집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 장소마다 존재하였던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자연석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하나로 집적된 장소들의 모임은 그 자체로 본인을 나타내는 오브제가 된다. 건물과 자연석을 연결하는 동시에 지탱하는 실 한 올 한 올을 통하여 약하지만 모이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2]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II

## [작품 2]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II

연도 : 2018

크기 : 70×72×40 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실

### 제작방법

1.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길이에 맞춰 절단한 후 아르곤 용접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를 만든다.
2. 만들어진 결과물을 채색한다.
3. 실을 사용하여 자연석을 내부에 매달아 준다.

### 작품설명

작품에 등장하는 건물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전시관(보안과청사)이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에게 점령당한 시기에 독립 운동가들을 수감하고 처형한 장소이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곳에서 순국하였으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겪은 고통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과거의 시간 속 선조들이 지키고자 투쟁하고 노력한 역사는 순국선열의 얼로 남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서려있다. 본인은 장소 안에 존재하는 순국선열의 얼을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건물과 자연석을 연결하는 동시에 지탱하는 실 한 올 한 올을 통하여 약하지만 모이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3]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I

### [작품 3]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 I

연도 : 2018

크기 : 75×95×36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실

#### 제작방법

1.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길이에 맞춰 절단한 후 아르곤 용접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를 만든다.
2. 만들어진 결과물을 채색한다.
3. 실을 사용하여 자연석을 내부에 매달아 준다.

#### 작품설명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은 독일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따라 변화하고, 교체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노력한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자연석으로 표현하였다. 건물과 자연석을 연결하는 동시에 지탱하는 실 한 올 한 올을 통하여 약하지만 모이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4] 두 번째 주름

#### [작품 4] 두 번째 주름

연도 : 2019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Frp,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실, 에폭시

#### 제작방법

1. 인체의 다리 부분을 흙을 사용하여 제작한 뒤 실리콘과 석고로 겉 틀을 만든다.
2. 포리코트를 사용하여 다리를 여러 개 복제한다.
3.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다리 위 구조들을 아르곤 용접을 이용하여 만든다.
4. 다리에 구멍을 뚫어 구조물을 임시로 연결한 뒤 에폭시를 사용하여 최종 연결한다.
5. 구조물을 채색한다.
6. 실을 사용하여 자연석을 구조물 내부에 매달아 준다.

#### 작품설명

석사학위 청구전에 발표한 설치 작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관계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장소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생각에 대한 표현이다.

친한 친구, 익숙했던 장소에서 익숙함과 낯섦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본인은 이 익숙함과 낯섦의 감정은 본인이 맺은 관계들과 본인이 제외된 시

간동안 대상에게 생긴 관계들의 팽팽한 대립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 개인과 사물, 장소, 사회 등 전반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도 계속해서 뺏어나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관계들은 때로는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 구조물 내부의 얇은 실들이 지탱하고 있는 무거운 돌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팽팽한 대립의 연속선상 위에 놓여있다.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 간의 관계들 속에서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할 것들과 추앙하는 것들을 돌에 은유하였다. 줄이 끊어지면 무거운 돌은 떨어지듯이 관계의 균형 역시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약해보이지만 강한 관계와 강해보이지만 약한 관계의 반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작품 5] 보이지 않는 것들-2018-IV

[작품 5] 보이지 않는 것들-2018-IV

연도 : 2018

크기 : 30×50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실

제작방법

1. 아르곤 용접을 사용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건축 구조물 모형을 만든다.
2.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만든 구조물을 아르곤 용접을 통하여 부착한다.
3. 자연석이 위치할 부위에 5mm 길이의 스텐 환봉을 용접하고 실을 묶어둔다.
4. 자연석의 부착면을 연마하여 석재 에폭시로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부착한다.
5. 미리 고정해둔 실을 건축 구조물 부위에 연결한다.

작품설명

우리 주변에서 도시 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이유로 있다가 사라지는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사라지는 장소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중심에 주목하고 폐허가 된 건물과 자연석을 배치하고 실로 연결하였다.



[작품 6] 보이지 않는 것들-2018-V

[작품 5] 보이지 않는 것들-2018-IV

연도 : 2018

크기 : 30×50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실

제작방법

1. 아르곤 용접을 사용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건축 구조물 모형을 만든다.
2.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만든 구조물을 아르곤 용접을 통하여 부착한다.
3. 자연석이 위치할 부위에 5mm 길이의 스텐 환봉을 용접하고 실을 묶어둔다.
4. 자연석의 부착면을 연마하여 석재 에폭시로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부착한다.
5. 미리 고정해둔 실을 건축 구조물 부위에 연결한다.

작품설명

추상화되어 쌓여있는 건축물을 표현하고 거울에 비치는 효과에 빗대어 아래 위로 복사된 건물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돌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건물과 이를 연결해주는 실을 통하여 하나의 공통된 가치를 갖는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7] 봉괴 I

## [작품 7] 붕괴 I

연도 : 2018

크기 : 41×43×50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 제작방법

1. 아르곤 용접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원기둥 모양으로 용접한다.
2. 용접된 원기둥 위에 자연석을 올려 원기둥을 붕괴시킨다.
3. 붕괴된 원기둥을 짧은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용접하여 튼튼하게 보강한다.
4. 락카 스프레이로 채색하여 마무리한다.

### 작품설명

본인은 작업을 통해 본인과 대상이 관계된 시간의 ‘익숙함’과 본인이 배제되어 있던 대상의 시간 속 형성된 관계들의 ‘낯섦’의 양가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에게 균형의 이미지는 미묘한 떨림을 유지하며 지속되는 상태, 그리고 가끔은 균형이 무너져 파괴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곤 한다.

붕괴 작업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것을 지탱하는 관계들의 균형이 무너져 파괴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8]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영 I

## [작품 8]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영 I

연도 : 2020

크기 : 30×28×31cm

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크롬 도장

### 제작방법

1. 아르곤 용접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녹여 나오는 철물을 켜켜이 쌓아 자연석을 본따 만든다.
2. 바닥에 놓인 자연석과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자연석을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용접하여 만든다.
3. 자연석에 구멍을 뚫어 석재에폭시를 이용하여 연결부위를 고정한다.
4.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자연석을 크롬 도장으로 표면처리를 하고 연결부위와 용접한다.

### 작품설명

이전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심인 자연석이 구조물 안의 일부분으로 나타나고, 파괴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심인 자연석이 바깥으로 나와 작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안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였지만 사라진 장소들은 해체된 폐허의 철 조각으로 자연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연석을 직접 만들어 표현 방법에 있어 변화를 주었다. 보이지 않는 중심은 지나온 시간을 모두 반영하며 만들어진다. 본인

은 자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어 켜켜이 쌓이는 철물로 자연석을 본따 만들고 주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주변을 반영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9] 낮선 풍경

## [작품 9] 낮선 풍경

연도 : 2021

크기 : 200×70×15cm

재료 : 철,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고밀도 폴리에틸렌

### 제작방법

1. 철판을 모양에 맞게 자르고 용접하여 밑판을 만든다.
2. 스테인레스 환봉에 열을 가해 구부리며 산의 형상을 만든다.
3. 스테인레스 환봉을 자르고 용접하여 건물의 모양을 만든다.
4.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녹여서 돌의 형태를 만든다.
5.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녹여서 돌의 형태를 만든다.
6. 밑판과 산의 형상을 용접하고 우레탄 페인트로 색칠을 한다.
7. 각 건물들을 서로 다른 락카를 이용하여 채색한다.
8. 밑판에 스텐 광판을 실리콘으로 고정하고 건물과 자연석,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돌,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돌을 고정한다.

### 작품설명

자연석은 본인에게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사회, 국가, 환경 등 다양한 층위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비유이다. 어릴 적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돌산의 절벽에서 골목길로 떨어져 있는 거대한 바위를 마주하게 되었다. 골목을 가득 채우는 바위의 커다란 몸집으로 인해 타고 있던 차량은 주행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현상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날의 사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산이란 형성 과정을 거쳐 현존하기까지 그 존재만으로 많은 것을 담는다.

본체로의 돌산, 떨어져 나온 바위, 쪼개진 작은 흔적들. 그것이 커다랗든 작든 그 속에는 역사가 깃든다. 나는 떨어져 나온 돌, 자연석에 주목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적층되고 구르고 굴러 단단해지는 자연석은 우리와 닮아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 이 중심은 개별체가 되어 개개인에게 존재하기도 하지만 집단이나 도시, 사회로 확대되어 이념, 제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작업을 통해 어릴 적 경험한 개인적인 사건을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입했다. 더 나아가 자연에서 떨어져 나온 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돌. 자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어 켜켜이 쌓이는 철물로 만든 나 자신이 갈고 닦은 돌을 제시하고 도형적으로 단순화하여 연출한 도시 풍경과의 관계를 표현했다.



[작품 10]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2021

## [작품 10] 보이지 않는 것들-응축-2021

연도 : 2021

크기 : 각 34×30×43cm

재료 : 철, 스테인레스 스틸, 자연석, 고밀도 폴리에틸렌, 실

### 제작방법

1. 철을 레이저 커팅하여 지구본 모양을 만든 후 용접한다.
2. 락카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색으로 채색한다.
3. 알곤 용접기로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녹여 돌의 형상을 만든다.
4.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녹여 돌의 형상을 만든다.
5.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이용하여 각각의 지구본 안에 돌을 고정한다.
6. 지구본과 내부에 위치한 자연석을 실로 감아 연결한다.

### 작품설명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본뜬 지구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작품 9] 낮선 풍경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자연 그 대로의 자연석과 본인이 스스로 갈고 닦아 만들어진 스테인레스 스틸 돌, 사회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쓰이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돌을 제시함으로 자연과 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본인은 여러 경험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축적되며 형성되는 가치 판단 기준을 작품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설정하고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하여 흐르는 시간 속 대상에서 느낀 양가적 감정과 그것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중심이 존재하는 대상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대상이 갖는 양가성은 대상과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계한 시간의 ‘익숙함’과 본인이 대상과 떨어져 있던 시간 속 형성된 관계들에서 느껴지는 ‘낯섦’에서 더 나아가 집단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이 느끼는 감정 등 대립되는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양가적인 것들이 대상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둘러싸고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보이지 않는 중심은 개인이 갖는 자아의식과 가치 판단 기준, 집단과 사회에 존재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 가치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유사함으로 인해 작업에서 자연적으로 은유되어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중심인 자연석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양가적인 관계들은 주로 용접된 건축물과 함께 표현되었다. 작업에서 보여지는 건축물은 한 사람의 시간을 담는 집이라는 장소로써 개인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사회의 역사를 담는 건축물의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때로는 붕괴되거나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건물처럼 파편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느껴오던 대상에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알아보며 작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인은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 관계들을 표현하는데 있어 현재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고 앞으로 다양한 재료와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 작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명식,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2017
-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 김일선 역, 『시간의 미궁』, 한림 출판사, 2013
- 슈테판 클라인, 유영미 역,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뜨인돌, 2017
- William S. Sahakian, 권순홍 역, 『서양철학사』, 문예출판사

### 《연구 논문》

- 박태우, 「근대건축물의 공간 재활용에서 시간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1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nvisible Things Metaphorically Expressed by Stone -Based on Author's Artworks-

Park, Jisu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 have felt the ambivalence of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caused by temporality when people encounter people, objects, and place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nd expresses this relationship of such objects in my work.

The ambivalence of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makes you feel the invisible things that the object may have, which you could not feel when you were used to it.

This invisible thing, which is expressed as a natural stone in my work, is not just an individual's "self-consciousness", but a "value" that an object, or group wants to pursue.

Just as one's self-consciousness and group values are formed

through long-term experience; natural stones are created throughou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or a long time.

I have discovered similarities in the process in which these two are formed, and metaphorically expressed the invisible thing with a natural stone.

Natural stones used in my work, were mainly located in buildings that contain personal memories or social history.

The ambivalence felt on the target is expressed as a thread that supports the natural stone, creating a subtly trembling balance and sometimes this balance is destroyed.

In summary, I would like to study the ambivalence I have felt in objects influenced by time and the invisible thing that originated from it, explore the objects that which it exists, and present specific directions of my 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invisible things influenced by time, focusing on the works between 2019 Master's Degree Claims Exhibition, and 2021.

Chapter I describes the starting point,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study of my work.

Chapter II first, describes the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caused by the passage of time.

Secondly, it describ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and compares the invisible thing to natural stones.

Finally, it describes objects that contain temporality, which invisible things exist.

Based on this, I have organized how I have expressed my work thus far and analyzed my work.

Chapter III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research done in this paper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my future work and challenges to be addressed.

# 인 준 서

박지선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김성홍 (인)

심사위원 노주환 (인)

심사위원 정경주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